

# 世界的인 石油産業 構造改編을 보는 눈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

石油産業은 세계적인 규모로 기업간 합병·제휴 등의 형태로 一大 構造改編期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 80년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석유의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世界石油業界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構造改編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작년말 갑자기 표면화된 美国系 메이저(國際石油資本) 텍사코에 의한 게티 오일의 흡수·통합은 세계석유산업의 구조개편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端的으로 말해주고 있다. 日本의 경우도 작년 10월부터 大協石油와 丸善石油의 정제부문 합병, 日本石油와 三菱石油의 전면제휴, 옛소石油와 제너럴石油의 판매제휴 등 석유업계의 再編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美国型 구조개편의 특징은 주식의 매매를 통해 기업을 합병하는 文字 그대로의 買收인데 비해 日本의 경우는 자본이나 경영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온건한 提携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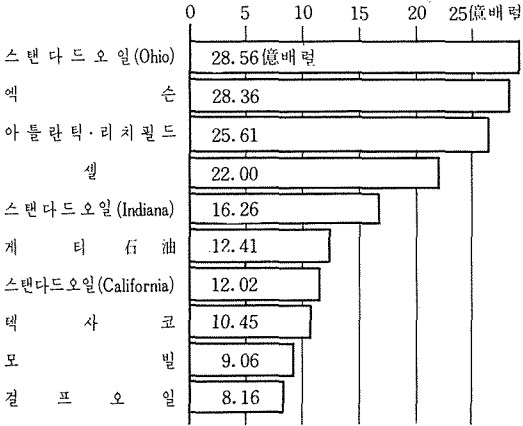
이와 같은 국제석유산업의 격동은 석유수요의 감퇴, 신규자원개발의 코스트 및 리스크의 상승등 石油産業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처하려는 기업경영자들의 의사결정의 표현으로서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금년에 들어와 世界石油産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구조개편작업의 주요내용은 ① 石油메이저들이 신규油田을 탐사, 개발하기 보다는 다른 석유회사를 買收하여 지난 70년대중에 크게 줄어든 自社보유 석유매장량을 늘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② 西歐의 석유업계는 파잉생산시설의 감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③ 日本의 석유업계도 회사들간의 제휴를 통해 精油 및 석유제품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노리고 있는 반면, ④ 石油輸出國들은 수출용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한편 消費地内の 정유 및 석유판매부문에 직접 진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텍사코는 지난 1월 7일 게티 오일의 인수계획을 발표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텍사코가 美国의 企業買收史上 최대규모인 약 1백억달러를 투입하여 게티 오일을 인수키로 한 것은 石油會社들이 보유한 자원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美国內 매장石油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

다. 실제로 게티 오일을 인수함으로써 현재 8位에 머물고 있는 텍사코의 美国内 매장석유보유량이 일약 4位로 뛰어 오르게 되었다.

(그림-1) 主要 石油会社別 美国内 石油埋藏量



이와 같은 텍사코의 게티 오일 인수에 자극받아 모빌, 걸프 등 美国内 석유매장량이 적은 회사들과 스탠다드 오일 등 과거부터 美国内 석유매장량을 중요시해온 회사들이 美国内의 석유매장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석유회사를 買收하는데 경쟁적으로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石油메이저들은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① 精油 및 石油제품판매부문, 특히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西欧의 정유 및 판매부문에서 손을 떼고, ② 원유 생산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0년대중 産油国들의 국유화정책 등으로 크게 줄어든 自社보유 石油매장량을 늘리되, ③ 이를 위해 요구되는 신규유전의 개발은 국유화 등의 위험이 적은 先進国, 특히 자기들의 母国에 집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油田의 개발활동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됨에 따라 石油메이저들은 美国内 석유매장량을 많이 보유한 다른 석유회사를 買收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이들이 신규油田의 개발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탐사결과 경제성있는 油田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신규油田의 개발비가 크게 늘어난데 비해 買收대상이 되고 있는 석유회사들은 이익의 상당부분을 신규油田의 개발에 투입하여 배당률이 낮

아진 결과 이 회사들의 주식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 회사들을 買收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규油田을 개발할 경우, 1배럴의 석유매장량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0~12달러인데 비해 다른 석유회사를 買收할 경우에는 7.5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석유수요의 감소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西欧의 石油業界는 파잉시설의 감축과 重質油分解施設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西欧石油市場이 자유경쟁시장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석유 경제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西欧石油業界는 이미 지난 77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 오던 파잉시설의 감축정책을 8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英国, 西独,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EC 6개국은 이미 80~82년중에 245만B/D의 정유시설을 폐쇄했으며, 다시 83~85년중에 100만B/D의 정유시설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5년말까지 이들 6개국의 정유시설은 1,240만B/D로 79년말에 비해 21.7%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表-1) EC 主要國의 精油施設 削減 推移 및 展望 (單位: 千B/D)

	79 年 末 精油施設	80~82年中 削減施設	83~85年中 削減施設	85 年 末 精油施設	削減率(%)
英 国	2,662	394	284	1,984	25.4
西 独	3,038	518	142	2,378	21.7
프 랑 스	3,352	554	0	2,798	16.5
이탈리아	3,968	562	94	3,312	16.5
벨 기 에	1,080	176	186	718	33.5
네덜란드	1,796	246	296	1,254	30.2
합 계	15,896	2,450	1,002	12,444	21.7

아울러 이들은 석유류소비의 中·輕質化에 대응하고, 정유회사들의 原油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重質油分解施設을 확충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9년말에 183만B/D에 불과했던 이들 6개국의 重質油分解施設이 오는 85년 말에

□ 石油時評 □

는 263만B/D로 늘어나고, 그 결과 정유시설에 대한 重質油分解시설의 비율도 79년말의 11.5%에서 오는 85년말에는 22.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表-2〉 西歐의 重質油 分解施設 增設 推移 및 展望

(單位：千B/D)

	精 油 施 設 (A)	分 解 施 設					B / A (%)	
		FCC	熱分解	水素化 分 解	크 킹	合 計 (B)		
英 国	79年末	2,662	190	130	42	44	406	15.3
	82年末	2,268	354	158	42	44	598	26.4
	85年末	1,984	354	146	42	44	586	29.5
西 独	79年末	3,038	192	214	36	80	522	17.2
	82年末	2,520	210	296	38	86	630	25.0
	85年末	2,378	200	286	90	102	678	28.5
프 랑 스	79年末	3,352	232	74	14	0	320	9.5
	82年末	2,798	276	122	14	0	412	14.7
	85年末	2,798	308	152	14	0	474	16.9
이탈리아	79年末	3,968	258	76	0	22	356	9.0
	82年末	3,406	276	254	0	22	552	16.2
	85年末	3,312	276	290	0	22	588	17.8
벨기에	79年末	1,080	80	0	0	0	80	7.4
	82年末	904	80	50	0	0	130	14.4
	85年末	718	80	50	0	0	130	18.1
네덜란드	79年末	1,796	78	60	0	10	148	8.2
	82年末	1,550	118	182	0	10	310	20.0
	85年末	1,254	118	182	0	10	310	24.7
합 計	79年末	15,896	1,030	554	92	156	1,832	11.5
	82年末	13,446	1,314	1,062	94	162	2,632	19.6
	85年末	12,444	1,336	1,106	146	178	2,766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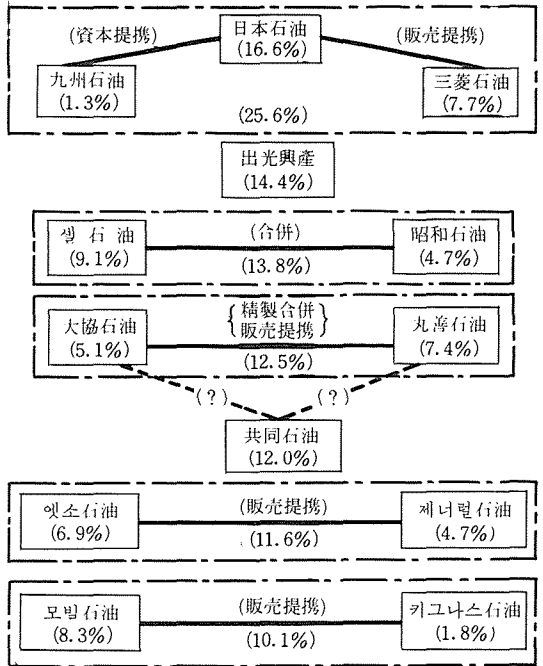
日本석유업계의 재편성은 通産省 資源에너지庁의 오랜 懸案이었던 바 최근에 이르러 元売단계의 집약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지난 81년 日本의 石油審議회는 ① 과잉시설의 감축, ② 石油제품의 공동판매, ③ 업무의 多角化가 앞으로 日本 석유업계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였으며, 이중 과잉시설의 감축은 지난 해 9월까지 97만B/D의 정유시설을 감축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石油産業 구조개편은 석유제품의 공동판매를 통해 精油 및 석유제품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0월 大協石油와 丸善石油의 제휴로 시작된 석유제품의 공동판매가 지난해말의 日本石油와 三菱石油의 접근, 금년 1월의 昭和石油와 셀石油의 합병 및 옛소石油와 제너럴石油의 제휴 등과 같은 형태로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그림-2〉 日本의 石油元売 13社の 集約·再編圖 (괄호안은 83年度 上期 취발유販賣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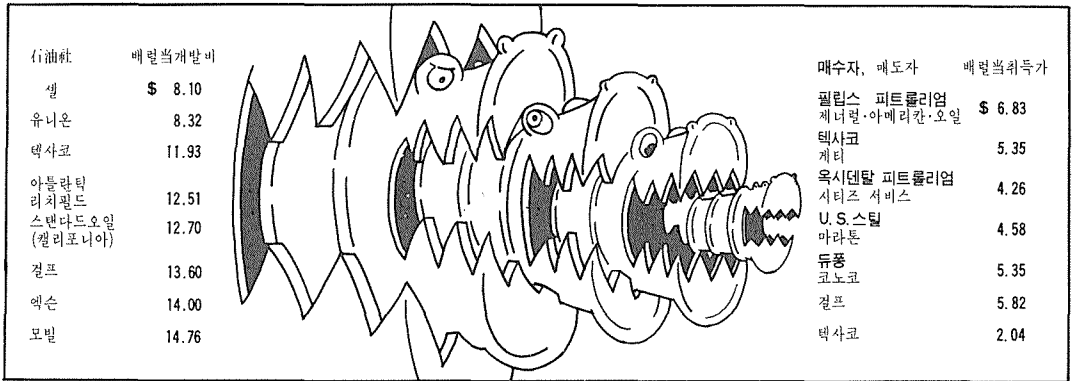
日本 석유업계가 최근 급속도로 集約化가 진행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앞으로 석유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日本의 석유수요는 지난 79년 9월부터 계속 감소해오다가 지난 83년 8월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급속한 수요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금까지 日本 석유업계의 재편성은 学界와 정부측에서 주장해 왔을 뿐 업계에서는 이를 외면해 왔으나, 최근에 양상이 크게 바뀌어 업계에서도 재편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83 회계연도 상반기 (83. 4~9월)에 석

(그림-3) 美國 石油產業 구조개편 現況



유업계가 총 1천억 원 정도의 대폭적인 경상적자를 낸 것이 업계에 심각한 위기감을 자극했다. 지난해 3월에 原油가격이 史上 처음으로 배럴당 5달러나 대폭 하락되어 석유업계는 收益회복의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나, 업계내의 과당경쟁으로 오히려 큰 적자를 내고 말았다.

세째로 이 기회를 잡아 通産省·石油審議會가 懸案의 업계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通産省은 기업의 자율적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표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으나, 배후에서 이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世界石油産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구조개편이 지금 당장은 우리 나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産油국들의 석유제품수출증대 및 소비지에 있는 精油 및 판매부문의 진출은 短·中期的으로 볼 때, 현재의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자기들이

소유한 정유공장에 보다 싼 가격으로 原油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石油業界도 시설의 개선, 경영의 합리화 등을 통해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것 같다.

최근 産油국들이 소비지의 정유 및 제품판매부문에 대한 진출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석유제품가격이 原油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이므로 석유제품시장의 통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原油가격을 그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장기적인 戰略이 깔려 있다. 한편 石油메이저들이 다른 석유회사의 買收에 주력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신규油田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석유공급부족을 야기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망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태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長期에너지政策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지각없는 외제선호

## 부리썩는 경제질서